

메모리 빼곤... 車·로봇 中에 다 밀려

한국이 중국을 쫓아가야 하는 시대 가 됐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2015년부터 기술을 축적해온 중국이 이제 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렸다.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중국이 인공지능(AI) 집 설계와 팹리스 분야 우위를 앞세워 ‘경합’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AI 시대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은 ‘첨단 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R&D), 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 등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3개 분야(반도체·로봇·자동차)에서 한·중 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이 중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차 등 하위 3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자율주행·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는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중국 경쟁력이 앞섰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미흡하다”며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창간 60 韓中 산업 경쟁력 분석

반도체 ‘경합’ 수준 쫓겨... AI시장 규모 30배 차이 추격자 신세된 한국... “주력산업 고도화 서둘러야”

중국이 무서운 점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한 없는 정부 지원이다. 실제로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인 AI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 체급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달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의 AI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1조 2000억원(약 252조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의 AI 매출은 6조3000억원이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피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규모의 경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싸움을 할 수 있는지 물으면 답이 없다”며 “예산부터 인프라, 에너지까지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개발보다 산업 엔지니어링을 최적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브라질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수차례 포옹을 나누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동안 룰라 대통령과 3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다. 김효영 기자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우주항공·희토류 손잡는다

李·룰라 청와대서 정상회담 韓·남미 무역협상 재개 추진 보건·농업 10개 분야 MOU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으로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브라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우주·항공과 희토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 정상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묻혀 있다”면서 “핵심 광물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출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 민

항기 공동 개발 등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희토류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2100만톤으로 중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묻혀 있다”면서 “핵심 광물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출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 민

항기 공동 개발 등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립니다

매경 금융상품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제31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신용카드, 저축은행, 핀테크 등에서 2025년에 개발·판매한 상품이 응모 대상입니다.

시상 △대상(금융위원장) △최우수·우수·특별상(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상) △금융협 회장상

마감 3월 20일(금) 오후 6시

지원 매경 홈페이지(mk.co.kr) 지원서 다운로드 문의 금융부 (02)2000-2292

주최 매일경제신문사

美 관세복원... ‘슈퍼301조’ 中부터 겨눴다

상호관세 대체수단 속도전 쌀 보조금·과잉생산도 조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관련기사 A3면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USTR이 무제한 세율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대체 수단을 강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 ABC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며 “그들은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

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관세는 구체적인 수입 품목에 부과된다.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상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위법 판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대체 조치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6·3선거 ‘개헌 동시투표’ 가시화

국민투표법 행안위 통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직권으로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건너뛰자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

민으로서 국내 거주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명부에 올리도록 한 부분이다. 현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 등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분회의까지 통과하면 개헌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부분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영화 기자

MK TECH REVIEW B1~8면
Live 중소기업 C1~4면

세레니티 골프 앤 리조트 특별 무기명 모집

세레니티 강촌CC 3월 클럽하우스 및 코스 리뉴얼 오픈

서울 세레니티 강촌
서울양양고속도로 [45분]

서울세종고속도로 [20~30분]

세레니티 청주 [1시간]

세레니티 강촌(18홀)

강촌IC 5분
서울에서 45분

세레니티 청주(27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

공식분양대행사 동부회원권거래소

입화문의 **02-3012-5445**